

『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¹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현¹ **

A Look into the Changes in Medical Activitie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through *Hajae's Diary*

Lee Jeong-hyeon¹ **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Hajae's Diary*(荷齋日記) is a personal diary written by Gyu-Sik Ji(池圭植) between 1891 and 1911. He had a strong interest in medicine and maintained the belief that diseases could be cured by medicine. He recorded in significant detail the subject individuals, symptoms, name of prescription, price, the date of exchange and place of purchase in his diary.

Methods : His study classifies the era during which Western medicine was introduced to the general public and became populariz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based on articles related to medicine in *Hajae's Diary*.

Results : It could be identified that, as of the Gabo Reform(甲午更張) in 1894, Western medicine was introduced into the traditional medicine life and, starting from the Eulsa Treaty(乙巳條約) of 1905, Western medicine became popularized.

Conclusions : During the "traditional medicine period", traditional medicine was used for all medicinal activities. However, during the "Western medicine introduction period", Western medicine was used for only specific diseases. In the period during which Western medicine became popular, traditional medicine continued to be used. However, Western medicine was widely used for various diseases.

Key Words : *Hajae's Diary*(荷齋日記), Gyu-Sik Ji(池圭植), Medical Activitie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IOM Customization of TKM Knowledge for R&D(K14110)" funded by Medical History & Literature Group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Lee Jeong-hyeon.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E-mail : han@kiom.re.kr Tel : +82-42-868-9572

Fax : +82-42-863-9463.

접수일(2014년 10월26일), 수정일(2014년 11월20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24일).

I. 서론

구한말은 갑신정변, 갑오경장, 을사조약과 같이 큰 변화가 집중되었던 시기이다. 500여 년을 유지했던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가체제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의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수반했다. 또한 의료사적으로 보면 제중원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서양의학 도입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구한말 시기에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池圭植; 1851-?)은 『하재일기(荷齋日記)』를 남겼는데, 1891년부터 1911년까지 20여 년간 거의 빠짐없이 썼다.¹⁾ 게다가 직업의 특성에서 생긴 습관이었는지 누구와 얼마에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한 까닭에 당시 일반 대중의 생활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하재일기에는 그릇제작과 납품에 관련된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의약생활과 관련된 기사도 다수 존재한다.

- 1891년 1월 29일 : 저녁 무렵 혜교(惠橋) 길가 가게에 가서 『방약합편(方藥合編)』 1책과 『술몽쇄언(述夢瑣言)』 1책을 샀는데 값이 7냥이다.²⁾

- 1900년 7월 16일 : 어머님께서 어린애 병 때문에 걱정하여 오늘부터 산당(山堂)에서 치성을 드리겠다고 하고하였다. 그러므로 거역할 수 없어 다만 스스로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거행할 뿐이었다.³⁾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위의 방약합편 구입 기사나 기양(祈禳)행위를 안타까워하는 기사에서 나타나듯 의약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의약으로 질병

을 다스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재일기의 의약 관련 기록 역시 이와 같은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구한말의 의약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일기류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기록들이 적혀있으므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일기류는 16세기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鎖尾錄)』, 이문건(李文健)의 『묵재일기(默齋日記)』나 17세기 조극선(趙克善)의 『아곡일록(治谷日錄)』과 『인재일록(忍齋日錄)』이나 18세기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藁)』, 유만주(俞晩柱)의 『흙영(欽英)』, 이준(李濬)의 『도재일기(導哉日記)』, 권상일(權相一)의 『청대일기(淸臺日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생로병사와 관련된 의약생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기에 비하여 『하재일기』는 대중과 가까우면서 의약생활에 대한 기사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일기류를 통한 조선시대의 의약생활 연구는 신동원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신동원의 논문⁴⁾을 통해 16세기의 네트워크를 통한 약재 공급이 18세기에 대가를 받고 거래하게 되는 변화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일기류의 연구 이외에도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흥기의 논문⁵⁾을 통해 구한말의 약국의 존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여인석의 논문⁶⁾을 통해 서양의약의 대표적인 금계랍의 등장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하재일기』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

1) 조영준의 글에 '1905년 3월부터 1908년 2월까지 약 3년은 누락되었다.'는 문구가 있지만 서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해당 일기는 『하재일기』 8-9권에 존재한다.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hosun Dynasty Period in Diary. Seoul, Gulhangari. 2013. p.322.)
2) Ji Gyu-Sik. Hajae's Diary1. "晚間至惠橋路傍市, 方藥合編一冊, 述夢瑣言一冊買得, 而價爲七兩耳."
3) Ji Gyu-Sik. Hajae's Diary6. "慈母主以釋兒之病爲憂, 自今日爲始, 致誠于山堂爲教, 故不可拒逆, 只自奉承舉行耳."

4) Shin DW.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Medical Life betwee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Late 18th Century: From 'Gift' Economy to Market Economy.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5) Lee HK. Changes of Medico-pharmaceutical Profession and Private Practi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 Ebb and Flow of Western Pharmacies and Clinics Attached to Pharmacy.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0. 19(2).
6) Yeo IS. A History of Malaria in Modern Korea 1876-1945.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1. 20(1).

본7)이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의 국역 『하재일기』⁸⁾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⁹⁾가 있었기에 손쉽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원문과 국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재일기』에서 뽑은 의약관련 기사는 260개 정도이다. 의약생활과 관련 있는 기사는 일기 전체에서 수시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치료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기사가 218개(복수 선택. 이하 동일), 처방이나 약재, 침 등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기사가 49개, 전통의약과 구별하여 외국 의사의 치료 또는 처방이 명시되어 있는 기사가 25개, 굿이나 치성 등 기양(祈禳)행위가 명시되어 있는 기사가 7개, 기타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또는 한의서나 의원생애에 관한 기사가 21개가 있다.

본 논문은 구한말 공인이었던 지규식의 일기를 통해 전통의약 기반의 생활에서 서양의약이 언제부터 유입되어 일반 대중이 이용했으며, 이 시대 의약생활이 어떠한지 기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의약생활의 변화

『하재일기』 전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외국인 혹은 외국문물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고, 1904년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외국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익숙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20년간 기록된 『하재일기』의 의약관련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1894년과 1904년을 기점으로 한 경향성으로 분류하여 1891년부터 1894년까지를 ‘전통의약 시기’로, 1895년부터 1904년까지를 ‘서양의약 유입 시기’로, 1905년부터 1911년까지를 ‘서양의약 대중화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⁰⁾

가. 전통의약 시기(1891-1894)

지규식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91년에서 갑오경장 1894년까지는 대체로 전통의약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서양의약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전통의약에 근거한 대처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재일기 중 1권부터 3권까지 해당된다.

- 1891년 4월 30일 : 이인과 함께 이천실에 가서 상추쌈밥을 먹은 뒤 함께 이현(泥峴)으로 가서 제증원(濟衆院)에 들어가 이인의 콧병에 대해 물으니 “내복 환약(丸藥)과 외부에 붙이는 고약(膏藥) 값이 12냥이 된다.” 고 하므로, 그곳에서 약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산(雲山)을 방문하여 안부를 물은 뒤에 이인 풍증(風症)에 대해 논하니, 먼저 앉아서 붙이는 약을 조제하여 병 속에 넣어서 주고 약방문(藥方文) 1장을 처방하여 주었다. 저녁을 먹은 뒤 주동에 가서 이인을 만나 약을 조제하여 코에 붙여 주고 돌아왔다.¹¹⁾

- 1891년 8월 23일 : 나는 즉시 길을 떠나 오후에 김영문 집에 도착하여 장이를 전하여 주고, 곧바로 김운산이 묵고 있는 주동(鑄洞) 여관으로 가서 천유(天裕) 병록(病錄)을 전하여 보여주었더니, 약방문을 해주었다. 또 칠정단(七精丹) 147개의 값이

을 하였다.(Shin DW. Hangukgeundaebogeuiriyosa. Seoul. Hanwool. 1997.)

1876-1885(전염병 문제와 근대위생에 대한 관심의 대두)
1885-1894(신삼의사 체제의 성립과 소극적인 근대위생사업의 실시)

1894-1896(삼의사 체제의 붕괴와 근대보건의료 체제의 탄생)

1896-1905(근대 국가보건의료 체제의 건설과 위생계몽운동의 전개)

1905-1910(보건의료제도의 식민지적 재편과 국권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

11) Ji Gyu-Sik. Hajae's Diary 1. “與伊人往利川室，喫高昔飯後，同往泥峴，入濟衆院，問伊人鼻病，則內服丸藥，外付膏藥而價文爲十二兩云，故不知裏許服藥，尋處，歸路訪雲山，叙寒溫後，論伊人風症，先以付藥坐製入瓶，而方文一度成出，夕飯後，往紉洞見伊人，和藥付鼻而歸。”

7) Ji Gyu-Sik. Hajae's Diary. (Kyujanggak. 古 4655-44)

8)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Korean)『Hajae's Diary』1-8.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5-2009.

9)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ajae's Diary. DB of Korean classics[2014.10.01.] : <http://db.itkc.or.kr>

10) 신동원은 한국근대보건의료사에서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

14냥 7전이라고 하고, 초사(蕉史)가 복용한 신해산(神解散) 값이 9냥이라고 하였다.¹²⁾

- 1891년 9월 11일 : 돌아서 주동 김운산(金雲山) 집에 가니 천유(天裕)의 약방문이 나왔는데 작약탕(芍藥湯) 5첩이다.¹³⁾

위 기사를 보면 지인과 함께 이현(泥峴; 진고개. 현재의 충무로 부근) 근처 제증원에 가서 처방과 가격을 물어보았으나 어떠한 연유 때문인지 고민하다가 약을 짓지 않는다. 당시 제증원은 구리개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치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기록¹⁴⁾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서양의약에 대하여 그다지 신뢰하지 못했거나 아직은 생소했던 것일 수도 있다. 돌아오는 길에 평소 친분이 있던 김운산에게 들러서 외용약과 처방전을 받아온다. 제증원처럼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존재하며 일반 대중도 자연스럽게 이용했다는 점과 정식 의료기관 외에 전문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약재거래를 하며 의약자문 역할을 하던 '약국'이 대표적인데, 보통 성씨를 붙여서 흥약국과 같은 형태로 불리거나 지명을 붙여 포동약국과 같은 형태로 불렸다. 또한 위 기사의 김운산같이 약국은 운영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처방을 내주던 의원도 다수 존재했다. 질병 대처 방식에 있어서 급병 혹은 중병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고 병록이나 증상설명을 통하여 처방문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2) Ji Gyu-Sik. Hajae's Diary1. “余即登程, 午後至金永文家, 傳致長耳, 直往鑄洞金雲山僑館, 以天裕病錄傳示, 而出方文, 又七精丹一百四十七介, 價文十四兩七錢云, 蕉史所服神解散價九兩云.”

13) Ji Gyu-Sik. Hajae's Diary1. “轉往鑄洞金雲山家, 天有藥方文出來, 芍藥湯五貼.”

14)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ictorial History of Modern Medicine in Korea. Seoul. woonginthinkbig. 2009. p.31.
Shin DW. Hangukgeundaebogeuoniryosa. Seoul. Hanwool. 1997. pp.90-91.

15) Lee HK. Changes of Medico-pharmaceutical Profession and Private Practi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 Ebb and Flow of Western Pharmacies and Clinics Attached to Pharmacy.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0.

- 1891년 10월 13일 : 돌아오는 길에 포동(布洞) 약국에 들러서 박 선비를 만나 생부자(生附子) 1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동현(銅峴)에 가서 익준을 만나 함께 장동여관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익준이 민검서(閔檢書)의 부탁으로 약방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약을 지으려고 하므로 포동 박약국에 편지를 하여 지어 보내게 하였다.¹⁶⁾

- 1891년 10월 15일 : 포동 약국에 가서 부자를 살펴보니, 품질은 썩 좋지 않은데 값은 280냥이라고 하였다.¹⁷⁾

- 1891년 10월 23일 : 심 주사가 “서양인이 장차 인삼을 사려고 하니, 간색(看色)할 것 몇 근을 올려 오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므로 염에게 편지를 하였다.¹⁸⁾

지규식은 직접 약재를 구하여 약을 조제하거나 서양인들과 거래를 중개하기도 했다. 위 기사에는 포동 약국을 통해 부자를 구입하기도 하고 서양인과 인삼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자는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재 중의 하나이지만 대부분 소량 사용되고 있는데 부자 1근을 구입했다는 기록은 약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때마다 사용하고, 혹은 주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은 썩 좋지 않은데 값은 280냥’이라는 언급과 서양인이 인삼을 구입하기 위하여 간색(표본)을 요청한 사실로 보면 약재에 대해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스스로 처방하기도 하며 약을 조제하

19(2). p.346. “환가에서 의원을 찾아가 환자의 증세를 말하여 처방전을 받으면 이에 따라 약방에서 약을 구입하여 집에서 달여 환자에게 먹이는 것이 상례였다.”

16) Ji Gyu-Sik. Hajae's Diary1. “歸路入布洞藥局, 見朴雅, 生附子一斤求質之意爲托, 而至銅峴, 逢益俊, 同歸壯洞館, 喫些晚飯, 益俊以閔檢書之托, 持一藥方欲製, 故書及於布洞朴局, 使之製送.”

17) Ji Gyu-Sik. Hajae's Diary1. “往布洞局, 見附子, 品須不好, 而價則二百八十兩云矣.”

18) Ji Gyu-Sik. Hajae's Diary1. “沈主事云, 西人將欲買蔘, 看色次幾斤上來爲言, 故書及於廉耳.”

는 활동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약재를 감별할 수 있는 식견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부자 1근의 가격이 280냥이었는데 당시 국밥 1인분이 0.5냥¹⁹⁾이었던 것을 볼 때 매우 큰돈을 의약활동에 사용하였으며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891년 11월 19일 : 밤이 깊어 큰아이가 갑자기 팽관(癰亂)이 나서 크게 아파하였다. 우선 사관(四關)에 침을 놓고 대온중탕(大溫中湯) 1첩을 썼으나 끝내 효험이 없어서 다시 홍생원을 청해 와서 진맥하고, 부자이중탕(附子理中湯) 1첩을 지어다가 달이는데 막 잠이 들었다. 그래서 잠이 깨일 때를 기다리다 놓아 두고 나도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²⁰⁾

위 기사를 보면 지규식이 직접 큰아이의 팽관에 직접 침을 놓고 대온중탕 1첩을 처방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약과 침에 반응이 없자 홍생원을 모셔와 진맥하고 부자이중탕 1첩을 먹이려한다. 본인이 침도 놓고 처방도 사용했지만 진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바로 의원과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하재일기 전체에서 본인이 진맥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당시에 한의서를 읽을 수 있으며 집에 처방집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²¹⁾ 진맥 같은 전문적 의료 행위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의원과 구별

되는 지점이었다. 또한 일상적인 병이나 가벼운 증상에는 본인이 직접 질병에 대처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보다 의약지식이 풍부한 인물에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와 같은 장면은 『하재일기』 의약관련 기사에서 계속 등장하는 형태이다. 1번 먹을 분량인 1첩씩 지어 직접 달여서 복용하는 형태가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던 것도 알 수 있다.

- 1894년 4월 27일 : 늦게 내동(內洞) 김 감찰 집에 가서 칠선단 1제(劑)를 가져왔다. 값이 30냥이다. 춘헌이 사용할 약으로 영사(靈砂) 7전과 괴화(槐花) 7전을 홍약국에서 얻어 왔다. 춘헌에 이르러 사물탕(四物湯)을 달여서 먹이고 돌아왔다.²²⁾

『하재일기』에는 매우 많은 단위명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대에 의미가 흐려진 ‘첩’과 ‘제’가 등장하고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하재일기에서 나오는 탕약의 처방은 대부분 5첩 이하인데 간혹 7첩, 10첩, 20첩이 등장하고 ‘1제’도 등장한다. ‘제’는 ‘칠선단 1제가 30냥’, ‘가미지황탕 1제에 102냥’의 기사처럼 모두 30으로 나누어지는 액수이며, ‘제’보다 작은 단위인 ‘첩’으로는 20첩까지만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구한말 당시에는 ‘1제=30첩’의 공식이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첩’은 한번 먹을 분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보통 2-3첩을 복용했던 것 같다. ‘약 3첩을 지어 왔다. 밤에 1첩을 복용하였다.’,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 2첩을 지어 와 밤낮으로 계속 복용하였으나’, ‘감기로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 2첩을 지어 와 저녁을 먹은 뒤 1첩을 복용하였다.’와 같은 기사를 보면 대부분 끼니때 1첩씩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병세에 따라서 2-4첩까지 연복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약 2첩을 연이어 복용하였으나 효험이 없다.’, ‘나는 흥복통으로 하루 밤낮을 매

19) Park US. Hajae's Diary1 Report(DB of Korean classics)[2014.10.01.] : http://db.itkc.or.kr/itkcdb/text/seojiViewPopup.jsp?bizName=EK&seojiType=heje&seojid=kc_ek_m001

20) Ji Gyu-Sik. Hajae's Diary1. “夜深, 大兒忽以癰氣大痛, 先通四關, 用大溫中湯一貼, 竟無效, 復請洪生員來視脈, 附子理中湯一貼, 製來煎之, 方成眠矣, 待睡覺置之, 余亦困眠.”

21) Lee HK .Changes of Medico-pharmaceutical Profession and Private Practi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 Ebb and Flow of Western Pharmacies and Clinics Attached to Pharmacy.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0. 19(2). p.349.

22) Ji Gyu-Sik. Hajae's Diary3. “晚往內洞金監察家, 七仙丹一劑持來, 價文三十兩, 春軒所用藥, 靈砂七錢槐花七錢, 洪局得來, 至春軒, 煎四物湯服之歸來.”

우 아파서 약 4첩을 연이어 복용하였다.’, ‘내가 체기가 있어 저녁이 된 뒤 약 2첩과 2개의 환(丸)을 복용하고 잠을 잤다.’와 같은 기사들이다.

이 시기는 제중원 기사를 제외하면 모든 의약관련 기사가 전통의약에 관한 기사들이다. 이미 1885년 제중원의 설립으로 서양의약이 등장했지만 1894년 당시까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시기에는 목유산, 황기사물탕, 가미길폐탕, 경옥고, 칠정단, 팔미환, 옥미환, 계강환, 당귀보혈탕 등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약 30여개의 처방명이 등장하며 1891년 11월 19일 기사처럼 침치방도 등장한다. 본인이 직접 방약합편을 사서 읽고 간단한 증상은 스스로 처방하여 해결하는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지규식과 같이 문해(文解)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 의약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재일기 원본의 앞뒤 표지라든지 특정 부분에는 일기가 아닌 처방이나 구급법을 필사한 부분²³⁾이 있는데, 그가 실생활에서 직접 의약 지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서양의약 유입 시기(1895-1904)

갑오경장 이후 1895년에서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1904년까지는 서양의약이 서서히 대중에게 인식되는 서양의약 도입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전통의약 기반의 생활에 서양의약들이 서서히 언급되는 모습이 보인다. 하재일기 중 4권부터 8권 중반까지 해당된다.

- 1897년 4월 3일 : 홍약국에 가서 여주(驪州)에 사는 구 서방(具書房) 덕중(德仲)을 만나 통성명하였는데, 구 서방이 의술이 있었다. 홍지포(洪至圃)가 내 병의 증세를 언급하고 하나의 처방을 내주기를 원하니, 구 서방이 어렵게 여기지 않고 내 맥을 짚

어 보더니 하나의 처방을 내어 주었다. 그래서 2냥 어치 술을 사서 대접하였다.²⁴⁾

- 1902년 12월 2일 : 숙지황 1봉지를 홍약국에 보내어 가미육군전(加味六君煎) 3첩을 지어 왔다. 운루가 이 참봉에게 부탁하여 가미양소음(加味養蘇飲) 3첩을 또 지어 왔으므로 우선 그대로 두었다.²⁵⁾

이 시기의 의약과 경로에 관한 기사에는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약국과 인물이 등장한다. 1897년 4월 3일의 기사에는 홍약국에서 의술이 있는 구덕중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이 그려져 있다. 평소 지규식이 많은 처방을 받았던 홍지포가 지규식의 증세를 언급하자 맥을 짚고 어렵지 않게 처방을 내어준다. 약국이 단순하게 약을 거래하거나 처방전을 받는 곳이라는 사실 이외에, 의약과 관계있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약국의 우선적인 기능은 약재 및 약의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1897년 6월 22일 기사²⁶⁾에서 나타나듯이 본인이 처방을 말하여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 『하재일기』 전편에 거쳐 고루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약재만을 구입하기도 하고 구입한 약재를 사용하여 직접 약을 조제하기도 한다.²⁷⁾ 심지어는 1902년 12월 2일 기사처럼 숙지황을 홍약국에 보내어 그 숙지황을 사용한 가미육군전을 짓기도 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구한말의 약국은 처방이나 치료의 역할보다는 약재 거래가 주요 역할이었

23) Park US. Hajae's Diary1 Report(DB of Korean classics)[2014.10.01.] : http://db.itkc.or.kr/itkcdb/text/seojiViewPopup.jsp?bizName=EK&seojiType=heje&seojild=kc_ek_m001

24) Ji Gyu-Sik. Hajae's Diary5. “往洪局，逢驪州居具書房德仲，通姓名，具有醫術矣，洪至圃以余之病症言及，願出一方，具不爲之難，探余脈，出一方，因沽酒二兩，接之。”

25) Ji Gyu-Sik. Hajae's Diary8. “熟地黄一封，送于洪局，加味六君煎三貼製來，自雲樓託於李參奉，加味養蘇飲三貼，又製來，故姑置之。”

26) Ji Gyu-Sik. Hajae's Diary5. “춘헌의 병증이 점점 위중해져서 약을 복용하도록 할 일로 홍 약국에게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말해 처방할 때까지 무수히 지어 주도록 믿고 부탁했다.(春軒病症漸重，使之服藥事，言及於洪局補中益氣湯，待快差，無數製給之意，信託.)”

27) Ji Gyu-Sik. Hajae's Diary6. 1899년 6월 15일. “천금정청환(千金澄淸丸)과 밀환(蜜丸)을 만들어 6명이 나누어 썼다.(千金澄淸丸蜜丸製造，六人分用.)”

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진단과 치료와 회복의 장소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집’ 중심이었으며, 약국은 의약생활을 보조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²⁸⁾

- 1901년 12월 12일 : 홍약국에 약값 100냥이 갔다. 약값을 모두 계산하면 남은 돈은 80냥 3전인데, 그 중 100냥이 갔으니 더 지불한 돈이 19냥 3전이다.²⁹⁾

1901년 12월 12일 기사에서는 약국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약값을 모두 계산하면 남은 돈은 80냥 3전인데’라는 대목으로 보아 약은 수시로 짓고 중간중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지불방식으로 보인다. 남은금액이 적을 경우 예치하는 형태로 달아놓는 것도 돈 계산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1896년 7월 6일 : 여주 이가 학질로 크게 아파서 금계랍(金鷄蠟) 2푼쯤을 홍약국에서 구하여 주었다.³⁰⁾

- 1896년 12월 10일 : 정동(貞洞)에 가서 약원(藥院)의 금계랍(金鷄納) 한 병을 샀는데, 상품(上品)을 40냥에 샀다.³¹⁾

- 1897년 8월 24일 : 내가 가래와 기침이 있어 금계랍(金鷄納) 1푼쯤을 시험 삼아 복용하였다.³²⁾

- 1899년 6월 18일 : 내 학질 기운이 아

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신기(身氣)가 종일 불편했으나 참고서 누워 있지 않은 채 간신히 지냈다. 밤에 또 금계랍(金鷄納) 1푼을 복용했다.³³⁾

『하재일기』에서는 1895년 기사부터 서양의약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계랍에 대한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금계랍은 학질(말라리아)에 특효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대량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금계랍이 신문광고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1896년 11월 7일 독립신문의 금계랍 광고인데³⁴⁾ 그보다 앞선 1896년 7월 6일 기사에 홍약국에서 금계랍을 구해주었다는 기사를 보면, 이미 당시에 학질의 치료제로 널리 판매되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1> 대량 수입됨에 따라 거래량은 폭등하여 삼시간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고 그에 따라 가격도 차별화되었던 것 같다. 가까운 홍약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정동에 가서 상품을 40냥에 구입했다고 한 기사가 그 반증이다. 또한 대부분은 병에 포장된 형태 그대로를 구입했겠지만 ‘학질로 고생하던 여주에 사는 이씨에게 금계랍 2푼을 구하여 주었다’는 기사를 볼 때 약국에서는 다른 약제와 마찬가지로 분할하여 판매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약국에서 분할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은 금계랍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서양의약’이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좋은 약’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통의약과 서양의약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다. 1933년 문기홍이 지은 『체세보감』을 보면 금계랍이 포함된 처방³⁵⁾이 존재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28) Lee HK. Changes of Medico-pharmaceutical Profession and Private Practi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 Ebb and Flow of Western Pharmacies and Clinics Attached to Pharmacy.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0. 19(2). p.346.

29) Ji Gyu-Sik. Hajae's Diary7. “洪局藥價一百兩去，藥價都計在文八十兩三錢內，一百兩去，加下文十九兩三錢也。”

30) Ji Gyu-Sik. Hajae's Diary4. “呂李以癰大痛，金鷄蠟二分重，自洪局求得給之。”

31) Ji Gyu-Sik. Hajae's Diary5. “往貞洞，買藥院金鷄納一瓶，上品四十兩買得。”

32) Ji Gyu-Sik. Hajae's Diary5. “余有痰咳，試服金鷄納一分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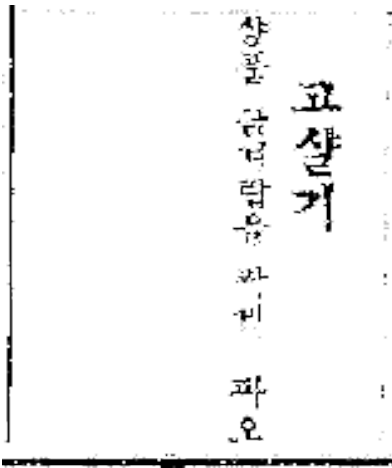
33) Ji Gyu-Sik. Hajae's Diary6. “余之瘧氣，尙未快祛，身氣終日不平，而忍耐不臥，艱辛捱過，夜又服金鷄納一分。”

34) Yeo IS. A History of Malaria in Modern Korea 1876-1945.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1. 20(1). pp.56-57.

Korea Press Foundation. Gosinmun Directory Service[2014.10.01.] : <http://www.mediagaon.or.kr/jsp/sch/mnews/gonews/goMain.jsp>

35) Moon Gi-hong. Jesebogam. Jesebangyakhbang. 1933.(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韓古朝68-47) “退瘧丸：人蔘頭 三錢，柴胡·雞心檳榔·常山·草果·半

이해할 수 있겠다.



<Fig.1 Quinine advertisement of the independent newspaper(Dated 07 November 1896)>

금계랍은 초창기 학질에만 쓰였지만 크게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후에는 약간 만병통치약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 같다. 1897년 8월 24일 기사를 보면 증상은 가래와 기침뿐인데 금계랍을 ‘시험 삼아’ 복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규식은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질과 연관되는 증상에 경험을 토대로 금계랍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험삼아’ 복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데, 1909년 6월 24일 기사를 보면 금계랍 1푼을 복용하고 구토, 현훈 등의 부작용을 자세히 적어놓았다.³⁶⁾

- 1895년 12월 10일 : 문구가 좌측 다리

夏 各一錢, 金雞納·中朱砂·石雄黃 各五分, 信石(醋炒燒)·甘草 各二分. 治諸瘧癘腹.”

36) Ji Gyu-Sik. Hajae's Diary9. “아침에 금계랍 1푼종을 복용하였다. 잠시 후에 구토하고 눈이 어쩔어쩔하고 귀가 먹먹하여 들리지 않았다. 미음을 조금 먹었는데 도로 토하고,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 1첩을 달여 먹었으나 또 토하였다. 온종일 정신이 혼미하고 땀을 흘렸다. 밤에 또 군자탕을 복용하고, 밤이 깊은 뒤 취침하였다.(朝服金雞蠟一分重, 少頃嘔吐眼暈耳聾, 少進藥飲還吐, 加味君子湯一貼煎服, 又吐, 終日昏昏流汗, 夜又服君子湯, 更深就眠.)”

마비 증세 때문에 장차 수종다리가 될 우려가 있다. 일본 의사 소야호민(小野好敏)에게 약을 물으니 흰 가루약 2봉지를 보냈으므로 먹었다.³⁷⁾

- 1895년 12월 11일 : 소야호민이 또 가루약 9첩을 보내어 아침·점심·저녁에 간복(間服)하게 하였다. 다시 조약국에 물으니 그 약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약 처방 하나를 내주어 홍약국에 가서 3첩을 지어 왔다.³⁸⁾

- 1895년 12월 15일 : 일본 의사 소야호민에게 가서 문구 불기 통증 때문에 잠시 필담을 나누었다. 호민이 다시 진찰하겠다고 하므로 허락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와서 진찰하더니 “약을 지어 보내겠다.”고 말하였다.³⁹⁾

지규식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그릇을 판매하여 인맥이 다양했던 까닭에 외국인 의사와 비교적 손쉽게 접촉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895년 12월에는 아들 문구의 다리 증세 때문에 일본인 의사였던 소야호민에게 청하여 흰 가루약 2봉지를 받고 다음날 9봉지를 추가로 받는다. 복용방법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하라고 하고 있다. 어떤 약인지 알 수 없던 지규식은 조약국에 물어보지만 잘 알지 못하고 전통의약 처방을 받아다가 홍약국에서 3첩을 지어온다. 소야호민에게 약을 받았지만 전통의약에 익숙한 지규식은 홍약국에서 다른 처방을 받아온다. 금계랍 기사를 제외하면 소야호민에 관한 기사는 『하재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양의약에 관한 기사인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규식은 서양의약을 생소하게 여겨 크게 신뢰하지 않은 것

37) Ji Gyu-Sik. Hajae's Diary4. “文龜以左腿不仁之症, 將有成瘰之慮, 日醫小野好敏處問藥, 則白屑藥二封送之, 故服之.”

38) Ji Gyu-Sik. Hajae's Diary4. “小野好敏, 又送屑藥九貼, 使之間服於朝晝夕矣, 更問於趙局, 則厥藥未詳, 更出一方, 往洪局三貼製來.”

39) Ji Gyu-Sik. Hajae's Diary4. “往日醫小野好敏處, 以文龜腎痛症, 移時筆談, 好敏更要診察, 故許之歸來矣, 晚來診症, 送藥劑云云.”

같은 느낌을 받는다. 4일 후인 15일 기사를 보면 소야호민에게 찾아가 아들 문구의 증세에 대해 필담을 나눈 후 왕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10일과 11일의 흰 가루약은 직접적인 진료 없이 증상설명만으로 약을 처방했고 15일이 되어서야 직접 왕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앞선 전통의약 시기(1891-1894)와 마찬가지로 전통의약을 이용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금계랍과 일본인 양의가 등장한다. 계중원 개설 초기부터 사용되었던 금계랍은 1895년 이후에는 급속히 일반 백성들의 의약 생활에 파고들었고, 남용될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하였다. 전통의약을 거래하던 동네의 약국에서도 금계랍을 취급하였고 상품(上品)을 따로 구입할 만큼 점점 가정에서 소장하는 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양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흰 가루약’으로 불리는 양약도 조금씩 생활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다.

다. 서양의약 대중화 시기(1905-1911)

을사조약 이후 1905년부터 일기를 마치는 1911년까지는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던 서양의약이 일부 증상에 있어서는 전통의약과 대등할 정도로 깊이 침투하는 서양의약 확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통의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양의약이 점점 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된다. 하재일기 중 8권 중반에서 9권까지 해당된다.

- 1905년 2월 7일 : 을시(戌時)경에 영지(榮智)가 양젓물을 잘못 마시고 땅바닥에 쓰러져 구토하였다. 번고가 경각에 달려 있어서 이것저것 해독약을 써서 토하게 하였으나, 목구멍과 혀가 모두 부어서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였다. 변씨복과 변금승(卞今崇)을 [약을 사 오라고] 급히 서울로 보냈다. 안팎의 모든 식구와 이웃 마을의 친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밤을 지새웠다. 이원춘 의관이 미음 한 그릇을 끓여 가지고 와서 나에게 권하므로 감사하여 모

두 먹었다.⁴⁰⁾

- 1905년 2월 8일 : 두 번가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가루약 5봉지와 약물[藥水] 1병을 사 가지고 왔다. 먼저 가루약 1봉지를 먹이니 악혈(惡血)을 토해 냈다. 다음에 1봉지를 먹이니 목구멍 속에서 화기(火氣)가 거세게 뿜어 나왔다. 다시 약물을 마시게 하니 도로 토하고 안주(按住)하지 못하였다. 한순간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반나절 동안 혼절하였다. 약간 정신이 들어서 연하여 약물을 먹이니 차도가 있는 듯하였다. 첫닭이 운 뒤에 또 1봉지를 복용하니 화기가 처음에 비해 약간 덜하였다. 억지로 안주시키고 연하여 약물을 먹이니 화기가 점점 안정되어 비로소 겨우 잠이 들었다.⁴¹⁾

- 1905년 2월 9일 : 약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루약 2봉지를 약물 없이 먹을 수 없으므로 영의를 전인하여 서울로 보냈다. 약물을 또 사 오려고 가동(家僮)을 데리고 즉시 출발하였다.⁴²⁾

- 1905년 3월 1일 : 영지 병세가 가볍지 않아서 특별히 서울 병원으로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⁴³⁾

- 1905년 3월 6일 : 영의가 영지를 데리고 내려왔다. 흡연 기계와 약물[藥水]·약가루[藥末]를 사 가지고 왔다.⁴⁴⁾

40) Ji Gyu-Sik. Hajae's Diary8. “戌時量，榮智誤飲洋灰水，倒地嘔吐，變在頃刻，雜施解毒之藥，使之吐出矣，喉舌盡浮，勺水不能吞下，使卞氏福卞今崇，急走送京矣，內外渾率，與隣里親知，相與達夜，李議官元春，米飲一器煎來勸我，故感謝盡服。”

41) Ji Gyu-Sik. Hajae's Diary8. “兩卞自京下來，質得末藥五封，藥水一瓶，先服一封藥，吐出惡血，次服一封，自喉中火氣猛發，再飲還吐，不能按住，一頃辛苦，半晌昏倒，稍有精神，連飲藥水，似有差度，鷄鳴後又服一封，則火氣比初次稍減，強勉按住，連飲藥水，則火氣漸定，方纔成眠。”

42) Ji Gyu-Sik. Hajae's Diary8. “藥水餘存無多，末藥二封，不可以無藥水堪服，故榮義專送京中，藥水又質以來次，率家僮卽發。”

43) Ji Gyu-Sik. Hajae's Diary8. “榮智病勢非輕，專送于京城病院。”

44) Ji Gyu-Sik. Hajae's Diary8. “榮義率榮智下來，吸煙器械與藥水藥末質來。”

1905년 2월 7일에 아들 영지가 양젓물을 잘못 마시고 쓰러져 구토하였지만 목구멍과 혀가 모두 부어서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 위급한 사건이 벌어진다. 지규식은 두 번가에게 서울에서 약을 사오라고 급히 보냈다. 이원춘이라는 의관까지 도우려고 왔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간호에 지친 지규식에게 미음을 끓여 주었을 뿐이다. 양젓물을 잘못 마셔 위독하게 되는 경우는 『하재일기』에도 여러 번 등장할 만큼 자주 발생했었는데 토법 이외에도 거위알이나 오리피 등이 좋다하여 찾아다니는 모습도 그려져 있다.⁴⁵⁾ 10여 년전 1896년 3월 8일에는 목매어 죽은 사람에게 『박시양방』의 구활방을 시험⁴⁶⁾할 만큼 모든 상황에 전통의약을 사용했지만, 이때는 전통의약인 해독약을 써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곧바로 서울에서 서양의약을 구하는 모습에서 인식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서 구해온 약은 가루약 5봉지와 약물 1병이었다. 가루약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게 하니 피와 화기를 토하고 약간 차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치료를 약 1달동안 계속하지만 점점 위독해져 3월 1일에 서울병원으로 보내어 치료받게 하고 5일 후에 흡연 기계와 약물과 약가루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전통의약으로 토법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다음으로 선택한 치료는 간접적으로 서양의약 처방을 받아 집에서 치료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세 번째는 서양의약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으러 떠난다. 이 일련의 과정은 지규식이 질병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본인 처방 - 의원 간접 처방 - 의원 직접 진료'와 동일하지만, 급하거나 위중한 증상에 서양의약 치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 1905년 5월 23일 : 일본九州(九州) 대분현(大分縣) 속견방(速見房) 별부(別府) 약의(藥醫) 히야견차랑(姬野堅次郎)이 내방하였다. 저녁을 먹은 뒤 지아(智兒) 병세를 의논하니 맥을 짚어 본 뒤에 시험 삼아 침을

놓고 증상을 살펴보자고 하므로 침에 따라 실시하게 하였다. 약수(藥水)를 침구멍(針孔)으로 유입시키고 명문(命門) 아래에 살가죽을 들고서 침을 찌르고 약수를 침 끝을 따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⁴⁷⁾

『하재일기』에는 주사를 맞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있기도 하다. 일본의 약의가 그릇 만드는 일로 왔다가 양젓물을 잘못 마셔 3달 넘도록 앓고 있는 아들 영지의 치료를 부탁받는다. 서양의약을 익힌 일본의 약의는 우선 맥을 짚어 보는데, 주사를 맞고 반응을 지켜보기로 한다. 주사액(약수)을 주사기로 빨아들인 후 허리 아래 중앙부의 살을 들고 주사하는 장면이다. 당시 지규식으로는 생소한 광경이었으므로 주사액을 '약수'라고 표현하고 주사바늘을 '침구멍'으로 표현하면서, '진맥-주사'의 치료과정과 주사 부위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일본의 약의에게 주사를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 영지는 25일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7일에 죽게 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온갖 치료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굶과 같은 기양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통의약 치료나 서양의약 치료를 하면서도 기양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⁴⁸⁾ 기양행위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는 지규식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⁴⁹⁾

- 1906년 3월 3일 : 윤루가 적취증(積聚症)으로 양의(洋醫)인 북장동(北壯洞)에 사는 이 교관(敎官)을 만났다. 환약 3알을

47) Ji Gyu-Sik, Hajae's Diary9. "日本九州大分縣速見邦別府, 藥醫姬野堅次郎, 來訪, 以磁器燻造事問議, 而日本水飛白土少許持造器, 要入釜燻出看色, 故使工匠, 造數介宗子, 夕後以智兒病勢議及, 則看診脈候後, 請試針探症云, 故依施之, 以藥水流入針孔, 於命門下, 舉皮刺針, 使藥水隨針未入內."

48) 서론 참조.

49) 1903년 12월 29일 기사에 '자정(子正)에 부엌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해 달라고 공손히 기도하였다.'라고 한 것을 볼때 치성은 인정하지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푸닥거리 등의 의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5) Ji Gyu-Sik, Hajae's Diary8. 1904년 3월 27일 기사.

46) Ji Gyu-Sik, Hajae's Diary4. 1896년 3월 8일 기사.

250냥에 값을 정해 가지고 와서 어젯밤에 1알 반을 복용하고, 오늘 아침에 또 1알 반을 복용하였다. 염탕(鹽湯)으로 물 마시듯이 삼키거나 측백잎[側柏葉]에 찹쌀을 조금 넣고 끓인 물로 마셔도 좋다고 하여 가르쳐 준 대로 복용하였다.⁵⁰⁾

지규식은 50대에 벽운루라는 술집의 주인(대개 운루라고 칭함)에게 마음을 쏟았으며 그녀가 아픈 곳이 있으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치료해주었던 것 같다. 1906년 3월 3일에는 운루가 적취증으로 고생하자 ‘양의’였던 교관에게 찾아가 진료 받고 환약 3알을 250냥에 사오는데, 전통의약과 비교하여 ‘양의’라는 개념이 이때는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 지석영의 요청으로 의학교가 세워지고 1902년 7월 4일에 유병필 등 19명의 근대 의사(양의)가 배출되는데 교관은 의학교에서 교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직책이었다.⁵¹⁾ 또한 같은 해에 가미개서탕 5첩을 22냥 5전이라고 한 기사⁵²⁾를 볼 때 환약 3알이 250냥이라면 매우 비싼 값이었지만 지규식은 기꺼이 지불하고, 이교관이 알려준 방법대로 충실하게 복용한다. 염탕이나 측백잎에 찹쌀을 조금 넣고 끓인 물로 복용하라는 지시로 미루어본다면 당시 이교관의 서양의약은 전통의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⁵³⁾

- 1907년 9월 23일 : 운루가 복용할 미국방보익약수(美國邦補益藥水) 값 150냥을 박봉래(朴鳳來)에게 선돈 주어 사 오게 하였다.⁵⁴⁾

- 1907년 12월 24일 : 운루가 복용할 보익환(補益丸) 3봉에 125냥, 기침약 15냥 어치를 종로 자혜약방(慈惠藥房)에서 사 왔다.⁵⁵⁾

한편 지규식은 신문에 광고되는 약들을 구입하여 운루에게 주기도 하는데 방보익약수나 보익환, 기침약 등이 그것이다. 자혜약방을 비롯한 서양의약 판매상들은 신문에 오랫동안 광고를 내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당시 방보익약수의 신문광고를 보면 허약은 물론 불면증과 불입까지 치료하며, 보익환도 몸이 붓거나 허리가 아픈 것부터 불입까지 다분히 만병통치약처럼 팔았으며 지규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였다. 1905년 이전의 금계랍이나 흰 가루약을 특정된 몇 가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다고 한다면, 1905년 이후에는 보다 넓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였다. 또한 약수나 보익환처럼 보약의 개념으로도 서양의약을 복용하였고 전통의약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시기에 비하여 서양의약이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Fig. 2-3>

- 1908년 3월 2일 : 벽운당을 간병하려고 프랑스[法國] 의사를 초청하여 문의하고 침을 맞고 약을 받았다. 약값은 200냥으로 확실히 정하고 100냥을 먼저 주었다.⁵⁶⁾

- 1908년 3월 14일 : 청국 왕 의원이 와서 운루 병증을 관찰하고 환약 12알을 주며 4차례 나누어 복용하라고 하였다. 값은 100냥으로 확실히 정하고 가져왔다. 저녁

50) Ji Gyu-Sik. Hajae's Diary9. “雲樓以積聚症，逢洋醫北壯洞居李教官，丸藥三介，價折二百五十兩持來，昨夜服一介半，今朝又服一介半，鹽湯吞下若飲水，側柏葉，粘米少許，煎湯飲下爲好云，依所教服之。”

51)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ictorial History of Modern Medicine in Korea. Seoul. woonginthinkbig. 2009. p.31. Shin DW. Hangukgeundaebogeuuiyosa. Seoul. Hanwool. 1997.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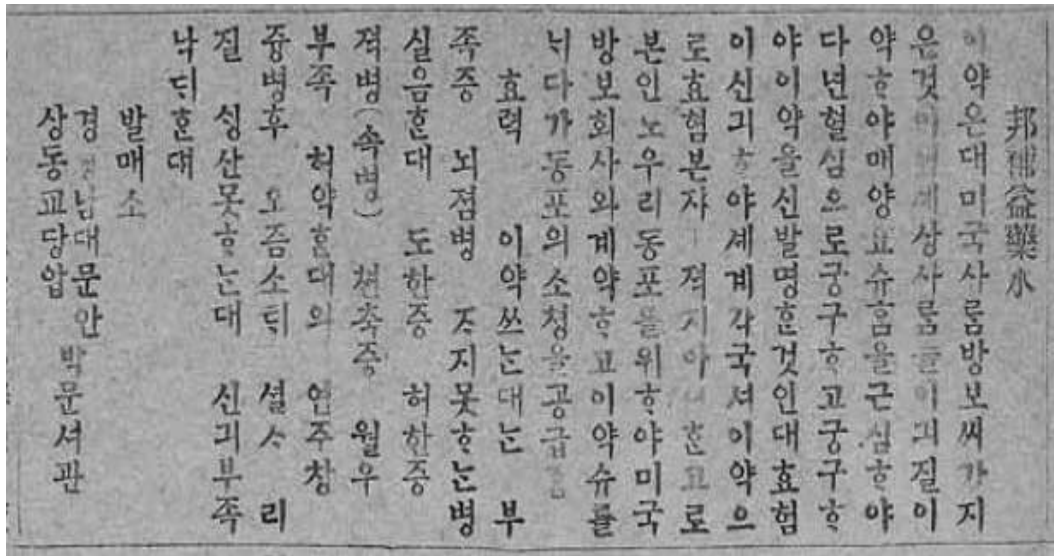
52) Ji Gyu-Sik. Hajae's Diary9. 1906년 11월 14일, 22일 기사. “남한산성 선영설(宣永高)이 내 견비통을 위해 가미개서탕(加味開舒湯) 5첩을 지어 보냈다. 그러므로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원춘이 남한산성에서 돌아왔다. “선영설 네 약값이 22냥 5전이라.”고 하였다.”

53) 의학교 설립 당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 양쪽을 모두 배우는 교육기관으로 설계되었다는 의견도 있다.(Shin DW. Hangukgeundaebogeuuiyosa. Seoul. Hanwool. 1997. p.256.)

54) Ji Gyu-Sik. Hajae's Diary9. “雲樓所服次，美國邦補益藥水價一百五十兩，先給於朴鳳來，使之買來。”

55) Ji Gyu-Sik. Hajae's Diary9. “雲樓所服補益丸三封一百二十五兩，咳嗽藥十五兩，鍾樓慈惠藥房買來。”

56) Ji Gyu-Sik. Hajae's Diary9. “碧雲堂看病次，請法國醫師問議，受鍼受藥，藥價二百兩的定，一百兩先給。”



<Fig.2 Bangboingnyaksu advertisement of the Daehanmaeilsinbo(Dated 20 August 1907)>



<Fig. 3 Boik-hwan advertisement of Jahye-Drugstore of the Daehanmaeilsinbo(Dated 12 November 1907)>

을 먹은 뒤 따뜻한 물로 3알을 복용하니
 답답한 기운이 차츰 안정되어 밤에 편안히
 잤다.⁵⁷⁾

57) Ji Gyu-Sik. Hajae's Diary9. “淸國王醫，來見雲樓病症，

지규식은 운루를 위해서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신통하다는 외국 의원들의 왕진까지도 주선했을 것이다. 1908년 3월에 2차례의 외국인 의원에게 왕진을 받게 하는데, 프랑스와 중국의 의원이 운루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2일 기사에서는 치료 이전에 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불 형태가 아닌 후불 형태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14일 기사에서 환약 12알을 4차례 나누어 복용하라고 했으므로 전통의약의 첩으로 치면 4첩에 100냥을 지불했는데, 1909년 7월 28일 기사에서 ‘견비통으로 침을 맞고 약 6첩을 지어오는데 51냥’에 비하면 역시 상당히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지규식은 높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⁵⁸⁾

이 시기는 앞선 서양의약 도입 시기(1895-1904)에 비하여 서양의약과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양꺾물을 잘 못 마시는 등 급한 증상에 전통의약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서양의

丸藥十二介，分四次服之云，而價文一百兩의定持來，夕後，溫水三介服，鬱氣稍定，夜穩眠.”

58) 당시 금계랍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높은 가격을 상품(上品)으로 여겼던 사실과 상통한다.

약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먹는 약 뿐 아니라 주사를 맞는 장면도 등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 ‘양의’ 이교관에게 치료받기도 하며, 자신이 아끼는 운루에게 외국인 의원에게 왕진까지 받게 할 수 있을 만큼 서양의약이 급격히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시기에는 학질이나 특수한 질병에 한정하여 서양의약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광범위한 질병 치료에 서양의약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 들지는 못했지만 감기에 삼소음을 복용한다던지 몸이 크게 아파 보충익기탕을 복용한다던지 하는 전통의약으로 치료하는 기사도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식으로 대표되는 일반 대중들의 서양의약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호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지규식의 『하재일기』에 쓰여진 의약 관련 기사를 통해 구한말 일반 대중의 질병 대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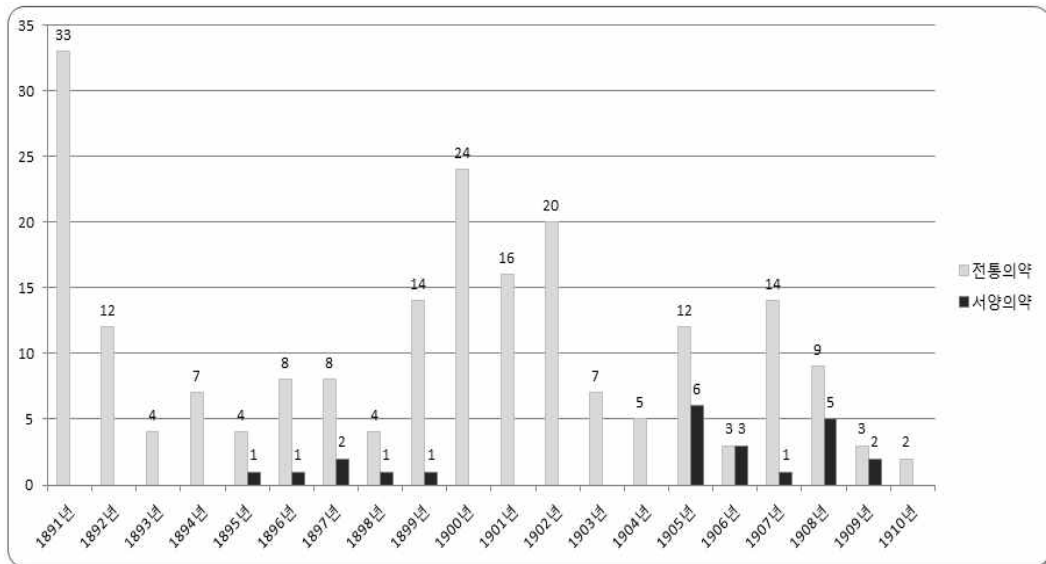
전통의약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통의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규식은 그가 구입했던 『방약합

편』이나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들을 사용하였고 침까지 직접 놓기도 하며 생활 깊숙이 전통의약을 사용하였다.

서양의약 도입 시기에는 역시 전통의약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학질의 특효약인 금계랍 등 일부 서양의약 관련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전통의약과 구별된 서양의약이라는 개념보다는 단지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인식한 듯 하고, 금계랍을 제외하면 서양의약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못했다.

서양의약 대중화 시기에는 눈에 띄게 서양의약 관련 기사가 등장하였으며 외국인 의원까지 등장하며 급격히 대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선 시기에 비하여 폭넓은 질병에 서양의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다지 거부감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통의약 중심의 사고에서 점점 서양의약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의약은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비중도 서양의약에 뒤지지 않았다.<Fig. 4>

지규식이 질병을 대처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머니나 며느



<Fig. 4 Annual incidence of medicine-related articles in Hajae's Diary>

리의 기양행위에 대해 심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이 사실을 반증한다. 그는 일상적이거나 가벼운 증상에는 자신의 경험과 방약합편 등의 처방집을 토대로 직접 처방한 약으로 대처하였다. 자신의 처방에 반응이 없거나 조금 더 중한 증상에는 주위의 의원이나 약국에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아 투약하였다. 그래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의원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 질병에 대처하였다. 다만 1905년을 기점으로 위급하거나 중한 증상에는 대부분 서양 의약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구한말 의약관련 활동의 주 무대는 집과 약국이었다. 환자는 대부분 집에서 있으면서 대리인의 증상 설명 혹은 편지 같은 서면 요청을 통해 처방을 받아 질병을 치료했다. 위급하거나 중한 질병의 경우에만 의원이 방문하여 진맥하고 처방전을 주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의원은 진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구별되었다. 처방을 받으면 약을 지어야 하므로 약재가 필요한데, 평소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약재나 약국을 통해 약을 짓고 때마다 달여서 복용하였다. 약국은 약재의 거래를 주로 하지만 의원을 겸하기도 하고 다른 지방의 의원과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지규식의 치료방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이용하기 쉬운 단방 형태가 아닌 처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방 위주의 경험방도 당시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차례도 단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18세기부터 이미 단방과 관련된 지식들이 수집되어 『광제비급』, 『임원경제지-인제지』, 『우잠잡저』 등으로 출간되지만⁵⁹⁾ 그의 의약관련 활동을 보면 전혀 다른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특징은 의약과 의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점이었다. 현대에는 약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어찌면 더 중요하며, 소위 '병원쇼팽'

을 다니는 사람들의 존재로 볼 때 의약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다. 지규식은 금계랍의 부작용을 겪으며 부작용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으며, 심지어 아들 영지가 죽기 이틀 전부터 일본 의사에게 주사를 맞았어도 전혀 의원이나 의약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약이나 의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양행위를 안타까워하는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지규식의 질병대처 방법의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지규식 본인을 비롯하여 의약 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몇 사람의 치료기록을 엮어본다면 한 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대 다른 지방의 기록이나 조선왕조실록, 옛신문, 일제시대 기록물 등과 비교하면 보다 폭넓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의학 문헌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의외로 실제 연구대상은 매우 좁은 편이다. 중국에서 발달한 의안류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안류나 진료기록이 흔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의안서적이거나 진료기록에 더하여 일기류의 연구를 통하여 조금씩 한의학 문헌연구의 외연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1. Ji Gyu-Sik(池圭植). Hajae's Diary(荷齋日記). (Kyujanggak. 古 4655-44)
2.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Korean)『Hajae's Diary』1-8.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5-2009.
3. Moon Gi-hong, Jesebogam. Jesebangyakbang. 1933.(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한古朝 68-47)
4. Shin DW.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Medical Life betwee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Late 18th Century: From 'Gift' Economy to Market Economy.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2006. 75.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59) Oh CK. A Single Medicine for a Disease : Simple Formula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It's Compilation and Success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3. 22(1). pp.29-31.

5. Yeo IS. A History of Malaria in Modern Korea 1876-1945.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1. 20(1).
6. Oh CK. A Single Medicine for a Disease : Simple Formula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It's Compilation and Success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3. 22(1).
7. Lee HK. Changes of Medico-pharmaceutical Profession and Private Practi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 Ebb and Flow of Western Pharmacies and Clinics Attached to Pharmacy.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2010. 19(2).
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hosun Dynasty Period in Diary. Seoul. Gulhangari. 2013.
9.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ictorial History of Modern Medicine in Korea. Seoul. woongjthinkbig. 2009.
10. Shin DW. Hangukgeundaebogeuuiryosa. Seoul. Hanwool. 1997.
11.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ajae's Diary. DB of Korean classics : <http://db.itkc.or.kr>
12. Korea Press Foundation. Gosinmun Directory Service : <http://www.mediagaon.or.kr/jsp/sch/mnews/gonews/goMain.jsp>

